



◀속초지역 1백여 불자들은 스스로 2년제 거사불교대학인 불교대학을 세워 지난 23일 신홍사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신홍사 불교대학' 첫 입학식 현장

'설악불교 활성화' 거사 1백여명 모였다

지금쯤 너무나 귀에 익숙하고 그 수도 많은 불교교양대학.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거사불자들이 스스로 불교배움터를 마련해 전법의 중심지로 일구겠다고 발원한 이들이 있다. 속초 신홍사불교대학 학장 법장 스님 첫 신입생 100여명이 바로 그들이다. 신홍사불교대학은 속초지역에선 처음으로 구성된 '거사불교대학'이다.

지난 23일 저녁 6시, 속초시 영랑동에 위치한 신홍사 포교당 원각사(주지 정법 스님, 정장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직장인들이 한 두명 씩 눈에 띄기 시작한다. 불과 30여분만에 원각사를 메운 거사불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아는 관계다. 썰사 모른다하더라도 한 사람 거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과 지역사회의 선배배가 아닌 불자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함께 부처의 길을 따르는 도반이란 새 인연을 맺었다.

원각 제작식에 이어 진행된 입학식에서 낙산사 주지 지홍 스님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와 함께 하는 여러분이 바로 선지식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남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봉식(IG프라자 사장) 씨의 발원문과 자기소개를 끝으로 입학식을 마쳤다. 신홍사불교대학은 이렇게 뜻을 모았다. 이 '전법호'에 동승한 거사불자들은

시장 교사의 의사 은행원 등 지역 지도층 '한자리' 속초시청 15명 단체입학
속초지역 신행단체들 작년 통합법회 열며 교육시설 필요성 제기

속초를 이끄는 사람들이라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속초시장, KBS 속초 방송국장들 비롯해 전·현직 교사, 의사, 공무원, 은행원, 언론인, 아파트관리소장 등.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다. 속초시청의 경우 15명이 단체로 입학원서를 낼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이들이 직업과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을 열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공통된 열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불교를 가르쳐주는 곳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배움을 망설였던 불자들. 그러나 자신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자신들임을 깨닫고 불교대학을 만들겠다는 발원을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불교대학이란

신홍사 불교대학



◀신홍사 불교대학 입학식에 앞서 개최한 헌관 제막식.

큰 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번 거사불교대학은 사실상 신홍사 거사법회, 달마회, 법륜회, 선우회가 밑거름이 됐다. 속초지역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이 모임들이 천복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몇몇 뜻있는 불자들이 지난해부터 통합법회를 열면서부터 거사불자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회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의지는 가시화되고 시작했고 이번이 첫 결실을 일컫는 것이다.

대학 설립의 실무를 맡았던 김병우(변호사 사무장) 씨는 "설악불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신행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불교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불교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대학을 2년제로 운영하게 된 이번

에는 포교사를 배출해 속초불교를 활성화하는 숨은 뜻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에 교양대학 등록도 준비중이고, 초·중·고등부 불교학생 법회는 이미 부활된 상태다. 생활불교 구현에 적극 나선다는 데도 거사불자들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주부불교대학, 가족과 함께 하는 동산법회, 사찰성지순례, 반야요양원 등 복지시설 후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강의 프로그램도 불법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췄다. 불교의 근본정신과 의식, 생활 속의 불교와 신행생활 등이 주를 이룬다.

신홍사 불교대학이 여느 불교대학과 다른 점은 지역 스님과 법보, 의료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 격일로 실시하는 특강과 강의 전 108 참회 그리고

회장직과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불교대학 운영에 꼭 필요한 총무, 재무, 교무, 6개(6바라밀)의 조장직 만을 뽑을 뿐이다. 신홍사불교대학 설립에 산파 역할을 했던 조동룡 씨는 "모두가 주인인데 회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회장 등의 직함이 많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멀어져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불교대학 설립의 가장 큰 의미는 불교포교의 사각지대인 속초지역에 본격적인 포교의 기쁨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불교대학에 비해 신홍사 불교대학은 시설과 규모 그리고 강사진 등은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불법 공부에 대한 열정과 설악불교 활성화에 대한 열정은 한낱의 더위를 무색케 할 정도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불자들은 불교연합회 구성과 속초불교회관 건립이란 또 다른 원력을 내비쳤다. 불교대학에 입학한 거사불자들은 불법을 배우는 기쁨과 안락까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지금의 열악한 불교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혹은 타종교의 교세확장으로 불자들이 주눅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마음껏 공부하고 신행하는 도량이 있지 않은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스님과 도반도 생겼다. 설악산의 푸르름과 동해의 맑은 바닷물처럼 그들 마음속에도 용맹한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사진=고영매 기자 yop@buddhania.com



신홍사 불교대학
상임지도법사
정념스님

"대학설립 원력세운 거사불자들에게 감사"

"속초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인해 스님이 독립을 위해 정진한 도량 백담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불자들이 인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비의 씨앗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신홍사불교대학 상임지도법사를 맡은 정념(원각사 주지) 스님은 학생들이 문자나 말이 아닌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스님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강의 전 '108배와 독경 수행'이다. 수행 즉 실천이 없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라 될 수 없다는 예기다. 또 스님은 "신홍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이 불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늦게나마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거사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대학을 설립해 공부의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도법사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스님은 향후 속초지역 불교를 이끌 포교사 배출에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조계종 포교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스님은 "포교사 배출은 곧 속초지역 포교의 새 장을 마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응시해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신홍사 불교대학
개교 산파역
조동룡 변호사

"또 하나의 서원 정규불교대로 승격"

단체나 모임이 구성될 경우 항상 산파역할을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신홍사불교대학의 경우 조동룡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칭 '부처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는 조 변호사는 "바람에 실을 때여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며 불교대학 설립의 공덕을 그동안 복지, 포교 등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오현(백담사 무궁선원장) 스님을 비롯해 지역스님과 불자들에게 돌렸다.

그가 불교대학 설립을 발원한 것은 속초지역 불자들이 기쁨에만 치우쳐 불교의식과 교리 배우기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도 절조차 제대로 못하는 불자였다. 지난해 10월 원각사의 6개월 과정 불교교양대학을 통해 의식과 교리에 눈을 떴다"며 "이번에 설립된 불교대학이 이러한 불자들을 끌어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6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토대로 2년제 과정의 신홍사불교대학 설립의 산파역할을 한 그는 또 하나 서원을 세우고 있다. 학생수를 200명 이상으로 늘려 정규 불교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방풍탕수

오월은 어디를 가나 활짝 핀 작약꽃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려는 50년 동안 여섯 차례의 대란을 겪으면서 젊은 장정만 20만 명이 죽었고 수십 만명의 부상자가 나온 시대였다. 작약꽃은 그 지극지극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충렬왕의 왕비인 원나라 공주가 평화의 상징으로, 개성공의 수령각(郭家閣)에 심은 이

후부터 우리 나라 전역으로 퍼졌다. 그러나 정작 공주는 작약이 만발하는 5월이 오면, 시름시름 앓으며 심한 기침과 두통으로 고생했다. 멀리 떨어진 자기 고향과 부왕, 형제들을 그리는, 심한 향수병을 앓았던 부를 찍자는 뜻에서, 충렬왕의 왕비다 쳐보아도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방풍차를 마시고부터는 얼굴에 화

중풍예방...요통·오한 등에 효과

기가 돌고 기억을 회복했다. 몽고의 일본정벌군이 압록강을 건너던 때,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방풍차였다. 본래 육지 출신은 굵은 바닷물 보면 멀미를 한다. 몽고 군대는 전형적인 육지 군대였다. 이들은 파도가 너울거리는 바다를 바라만 보아도 멀미와 두통을 일으켰고 싸움 의욕마저 잃어버렸다. 때문에, 방풍차와 방풍나물은 몽고군대의 중요한 전략식품이었다. 지금도 진도와 남해의 섬에 가면, 촌로들이 갯방풍을 '삼벌이'라고 부

른다. 아마도, 몽고군에 대항했던 삼벌초의 항전에서도 방풍나물이 병사들의 심리 안정과 풍토병에 효과 있었을 것이다. 지금쯤이면, 바닷가 모래 백사장이나 언덕에 가면 방풍 짝이 연하게 울러와 있다. 방풍(防風)은 잎과 뿌리를 먹는데, 이를 그대로 풍을 막아주는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요통, 두통, 오한, 발열, 눈의 충혈에 꼭 필요한 식품이다. **▶연산약연구가 <산사계기> 특별 한식단이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방풍뿌리 50g(버섯 양의 1/3), 마른표고 4~5장, 느타리 50g, 양송이 50g, 오이 1/2개, 당근 1/4개, 양파 1/3개, 피망 1/2개, 간장 2큰술, 튀은 소금·탕수소스재료: 물 1컵, 식초 1/3컵, 황설탕 1/3컵, 물엿 6큰술(물:녹말=1:1)

① 방풍뿌리는 찹뜨물이나 식초에 하루 밤 담가놓고 살짝 데친다. ② 마른 표고는 물에 불려서 밑동을 떼고, 손질한 버섯과 채소들과 함께 한 입 크기로 썰는다. ③ 달군 팬에 버섯과 채소를 각각 볶아둔다. ④ 팬에 불을 붓고, 끓이다 간장을 넣고 소금간을 한 뒤 황설탕과 식초를 넣어 소스를 만든다. ⑤ 설탕이 녹으면 부어낸 버섯과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⑥ 녹말 물을 조금씩 부어 걸쭉해질 때까지 농도를 맞추어 담아낸다.